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 都 日 報

joongdo.co.kr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농지 이양 은퇴농 163만원 지급

신덕수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4-09-10 14:12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가 지난 3월 시행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으로 지금까지 2ha의 농지를 이양한 은퇴농 4명에게 163만원을 지급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66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면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농지를 매도해 이양하는 방식(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과 개인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도 가능)과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에 가입해 직불금을 받는 두가지 방법 중 선택을 할수 있다.

직불금 지급은 최대 10년간, 84세까지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50만원(최대20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40만원(최대16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최근 시행 지침이 개정되면서 사업신청일 기준 직전 연도에 이양한 농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 2024년 농지이양 면적과 2023년 농지이양 면적에 대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영농은퇴계획을 세워 2년에 걸쳐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임성재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장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해 소멸위기의 농촌에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신덕수 기자 sds2008@

프린트

취소